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2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금년에 140억원을 석유공사에 출자하여 동해 대륙붕 등 3개 지역의 유·가스전 탐사·개발 지원 중

(2.4일자 서울경제 「예산 패싱… ‘동해 가스전 개발’ 멈췄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석유공사는 최근 동해가스전 인근에 위치한 대륙붕 탐사사업을 잠정 중단했으며, 예산 부족으로 추가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정부는 금년에 140억원을 석유공사에 출자하여 동해 대륙붕 등 3개 지역의 유·가스전 탐사·개발을 지원 중
-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, 올해도 6-1광구 중·동부 3D 물리탐사(2,575km²), 8광구 및 6-1광구 북부 유망성 평가, 4,5광구 3D 물리탐사(500km²) 등을 추진 중임

※ '22년 국내 대륙붕 탐사·개발 계획

구 분	총 투자액	정부출자액	탐사 계획
6-1광구 중·동부	355억원	107억원	• 3D 물리탐사 2,575Km ²
8광구 및 6-1광구 북부	60억원	9억원	• 유망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
4광구, 5광구	80억원	24억원	• 3D 물리탐사 500km ²
합계	495억원	140억원	-

※ 문의 : 자원안보정책과 최형기 과장(044-203-5240) / 황창호 사무관(5251)